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일환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세상은 온통 월드컵 모드다. 그저 6월을 붉은악마가 되어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만끽하면 좋으련만, 오지랖도 병이라 선거 이후 들리는 여러가지 이야기에 귀를 닫지 못하고 있다.

대개 선거가 끝나고 이맘때쯤이면 당선자들은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4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에 들어간다. 초선 단체장들은 화합과 개혁의 비중을 두고 고민할 것이고, 재선 또는 3선을 한 단체장들은 체신의 무게 비중을 염두에 둘 것이다. 또 선거기간 내세웠던 공약의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다.

‘완장부대’ 준동 막아야

그런데 당선자들이 여기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고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쏠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쏠림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없다. 쏠림은 항상 부작용을 동반한다. 이번 월드컵에서 보듯이 수비수가 한쪽으로 쏠리면 어김없이 골을 먹게 되는 것

과 같은 이치다. 득에 구멍을 내면 물은 한 쪽으로 쏠리게 마련이다. 쏠린 물은 구멍을 더욱 크게 하고, 독마져 무너뜨리게 한다. 그래서 쏠림은 위험하다. 단체장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쏠림을 외면한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 목을

쏠림을 경계한다

죄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쏠림 중에 당선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힘의 쏠림이요, 두 번째는 사람의 쏠림, 세 번째는 생각의 쏠림이다. 소위 당선에 기여했다 하여 호가호위하는 ‘완장부대’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

개혁을 추진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와 자기 집단과 생각을 달리한다 해서 감정적으로 사람을 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이념과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기존의 것을 무조건 배척해서 어느 조직이든지 수장이 바뀌고 나면

통과의례처럼 힘의 이동에 따른 갈등을 겪게 마련이다. 그러한 갈등을 초기에 잡지 않는다면 불신과 질시로 패가 갈리고 극단적으로는 조직이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새롭게 일신하고 시작하려는 계획을 망쳐 중국에는 민심이 등을 돌리는 파국을 맞게 된다.

그런데 벌써 당선자 주변인을 중심으로 잡음이 터져 나온다. “취임하면 누구누구는 손을 봐줘야겠다”는 확인도 되지 않은 살생부가 나도는가 하면 “누구누구와 친하니 좋은 자리를 천거하겠다”는 브로커들도 설친다고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소문이 나도는 것은 큰일이다.

또 당선자 주변인들의 전횡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당선자가 취임하면 요직을 약속받았다든지, 누구누구는 어디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떠돌고 다닌다. 그뿐이 아니다. 선거 당시 당선자를 돕지 않았다 하여 벌써 인사불이익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업무는 뒷전이고 학연·지연·혈연을 총동원 당선자에 줄을 대 충성을 맹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념논란도 서서히 일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 교육계의 수장이 진보 쪽이라 하여 일부 교육의 쏠림을 우려하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기존 교육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고 새판을 짤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심지어는 특정세력이 교육의 전면에서 나서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탕탕 평평의 마음가짐을

당선자들에게 감히 주문한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마음으로 주변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선거기간에 큰 공을 세웠다고 감정에 치우쳐 농공행상을 하려는 것은 당선자들을 뺀이준 주인의 뜻이 아니다.

또한 탕탕 평평의 자세가 중요하다. 당이 다르고 진보와 보수가 나뉜다 하여 내 편 내 편으로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 수장의 덕목은 중용이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

설익은 개혁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갈등의 요인이 된다. 언착륙을 통한 화합이 필요하다. 기존의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고 모두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내 것으로 만들고 잘못된 것만 속아내는 해안이 필요하다. 순위를 따지지만 개혁은 화합 다음이다. 우선은 조직을 안정시키고 점진적으로 개혁에 나가기 한다.

성공적인 4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중요하다. 당선자들의 초심이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

〈여론매체부장〉 kih8@kwangju.co.kr

시설

부실경영 지방 공기업 대폭 손질해야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상당수가 연간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22곳 가운데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도시공사와 환경시설공단·(주)한국CES·(재)남도학사 등 4곳에 불과하다.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주)광영정보센터·(재)광주디자인센터·(재)광주테크노파크 등 8곳은 지난해 374억14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기업 특성상 적자 구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 않다. 초기 투자비 과다로 당분간 흑자 전환이 어려운 공기업도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들의 부실경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적자를 기록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공기업 직원 1인당 연봉이 전국 평균보다 많고 기관장 연봉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역대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됐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자 폭이 지나

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 지난해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2년마다 정기 경영평가, 수시평가 및 기관장평가가 가능하도록 뒤늦게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부실경영은 광주시 재정악화를 가속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공기업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상환 불능에 빠지면 지자체가 주민의 혈세로 갚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방공기업도 내실화와 흑자경영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 이미 강연대 광주시장 당선자가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현실성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불요불급한 공기업과 출자기관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지역 민선 5기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체감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고용의 질도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체감실업률은 각각 7.4%, 13.6%로 평균(광역시 5.7%·광역시도 9.1%)을 크게 웃돌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취업자 가운데 취업준비자 등 실업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실업률이다. 즉 지역민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자 중 고령층 비중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남의 경우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임시·일용직 비중 역시 다른 지역에서는 높고 있는 추세와는 달리 전남은 2005년 이후, 광주는 2009년 상승으로 돌아왔다. 반면 영세자영업자 등 비일급근로자 비중은 무려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고용의 질마저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한국은행의 이번 통계는 지역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열악한 산업기반이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이는 다시 일자리 부족-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지 않고서 지역발전을 말하는 것은 허구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과 돈이 모여야 지역이 활성화되고 미래가 있다는 얘기다.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민선 5기의 최대과제가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지역의 민선 5기 단체장들은 광역과 기초를 망라하고 기업 및 투자 유치에 올인 해야 한다. 모든 행정력을 ‘기업 유치 좋은 환경’ 만들기에 쏟아야 한다. 전시장·생태대기 행사는 과감하게 없애고 지역민이 안정적 일자리와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전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 민선 5기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관공은 일자리 창출이다.

無等鼓

아버지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며 /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하여서 / 비록 극진한 데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마땅한 것이니 / 털끝만큼도 감격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 만일 배우는 자가 덕으로 자처하고 / 받는 자가 은혜로 생각한다면 / 이는 길에서 만난 사람과 같아 / 곧 장사꾼의 도(道)가 되는 것이다.

이해는 채근담에 있는 경구(警句)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의 도(道)이니 이해관계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다.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로효친(敬老孝親)의 사상은 유교문화권이었던 우리사회에서 뿌리 깊은 전통적인 덕목이자 생활규범 그 자체였다. 경로효친의 사상적 배경이었던 유교문화의 이념과 기강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 유교사상의 근간이다. 급속한 정보화사회의 이행과 개인주의의 팽배로 경로효친과 같은 고유한 가치관이 퇴색되고 반인륜적인 행위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노인이 공경

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노인 7명 중 평균 1명이 정서·신체적 학대 등을 경험했고 대부분의 학대가 가족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이 535만명 임을 감안하면 무려 73만여명이 학대를 경험한 셈이다.

지난해 전남도내에서도 640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노인학대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 못지않게 행위자가 아들(49%), 며느리(7.3%), 배우자(6.6%), 딸(4.7%) 등 가까운 점이 더 충격적이다.

그러나 효는 백성의 근본이자 오늘날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사회의 중심가치다. 지난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얼마나 공경 받지 못했으면 이러한 날까지 제정했을까. 노인을 받고 있는 효(孝)자의 의미를 깊이 성찰할 때가 /고령사회2부장 ksgo@

경로효친(敬老孝親)



기고

김관중



사람이 살면서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만 그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선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오염된 물을 먼저 잘 관리해야 가능하다.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처리하는 시설을 하수도라고 하는데 하수도가 잘 발달돼야 문명국임을 역사유물로도 밝혀졌다.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문화인 수메르 문화에서 보듯이 고대 문명국은 모두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었다 한다.

산업발달 이후 인간의 생활이 도시에 밀집되면서 하수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

때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 계획이나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수도 운영은 공공부문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정부에서 민간부문의 선진 기술·운영 노하우 및 전문성을 활용해 하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기준 전국의 하수처리장은 392개소(5000/일 이상) 중 민간위탁 비율은 공기업에 포함해 전체 하수시설의 66.5%를 차지하고 있다.

하수도에 관심을

고 환경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하게 됐다. 하수처리시설하면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하수배출 시설인 하수배제시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하수도의 역할은 첫째로 생활주변이 오수로 인해 지저분해지고 병원균·해충·악취 발생을 막아 공중위생이 향상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둘째로 하수처리장에서 오수를 처리해 깨끗한 물을 방류함으로써 하천 생태계를 살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빗물이 잘 배수되게 해 폭우 시 도시가 침수돼 인명과 재산피해가 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

우리들이 알기에 하수도시설 하면 악취 등 혐오시설로 여겨 자기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남비현상(NIM-BY=Not in My Backyard)이 있었지만, 최근에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은 주요 시설물이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에는 축구장·농구장·족구장 등 체육시설은 물론 공원이 조성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과거의 기피시설에서 주민들의 친화시설로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하지만, 영세업체가 난립해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공정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중도에 수탁업무를 포기해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시·군에서는 민간위탁 시 수탁업체에 대한 자본능력과 공공성·고용안정·전문인력의 확보 등 능력 여부를 검증한 후 위탁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공공기관 주도 하수처리시설 외에도 주변의 하천을 맑고 깨끗한 생태공간으로 만들어 녹색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주변의 하천과 강·바다를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선 광역단위의 하수처리 계획과 공공성·고용안정·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하수처리장의 운영을 위탁해 비용절감을 물론 수질개선 효과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물관리에 대한 애정을 갖음으로써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지켜 깨끗한 자연을 후손에게 부끄럼 없이 물려주는 길일 것이다.

〈K-water 전남지역본부 관리처장〉



옥영석



어느 집이나 모일에서도 이리저리 잘 어울리며,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많다. 학교가 끝나고 혼자 집에 가는 아이가 있고 여럿이 어울려 놀다가는 아이들이 있다. 업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료들과 대문집에서 어울려 밤늦게까지 떠드는 사람이 많다.

식사를 하거나 퇴근 후 집에 갈 때 방향이 다른데도 동료들과 같이 나서야 하는 나는 물론 혼자이기를 싫어하는

하지 않고 고독한 시간을 활동하던 그는 경쟁자들을 몇 바퀴 따돌린 육상주자처럼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아이들 성적은 상위 1%라고 한다.

물론 그가 옳고 이리저리 어울리기 좋아하는 쪽이 소비적이라는 건 아니다. 가끔 가득한 맥주잔을 부딪치며 스트레스도 풀고, 정보를 교환하며 생산적인 얘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애초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는 분명한 보답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혼자서도 식당에 잘 가시나요?

유형이다. 혼자 다니는 사람은 모나거나, 과확한 성격이 가졌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러니 여겨 왔다.

어느 날부터 눈에 띄는 선배가 있었다.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데다 실력도 출중하여, 직장에서는 손에 꼽을 만큼 잘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잘나가는 선배가 유독 홀로 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성격이 모난 편도 아니고 말 한 마디면 같이 식당에 가려 기다려 줄 사람도 많을 텐데, 늦은 점심을 홀로 먹거나 특별히 일이 없는 저녁에도 텅 빈 사무실에 남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곤 했다. 주말에 운동을 하다 사무실에 들르면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거나,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서적을 읽거나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오늘 내 모습은 어찌 홀린 닭의 결과라는 말이 있다. 홀로 식사하기를 주저

사람들은 혼자이기를 싫어한다. 외로움을 기피하고 두려워한다. 놀아도 같이 놀고, 숙제를 안 해 가고, 일을 미루어도 여럿이라면 매를 맞아도 마음 편한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여럿일 때 생산적이지 못하면 패거리로 전락하기 쉽다.

혼자 있기를 즐겨 하는 이는 외로워 보이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이다.

공부도 일도 결국은 스스로가 소화해야 하는 자신만의 몫일진대 홀로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이니 말이다.

일과 후 무언가를 배우려 학원에 다니거나,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활용하고 즐기는 건 어떤가? 당장 습관을 바꾸거나 시간 내기가 어렵다면 혼자 식사하는 것이라도 당당하게 연습해볼 일이다.

〈농협중앙회 차장·'05. 7월 수성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편상'을 수여 합니다. 은편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대학 내 화장실 위생 심각... 스스로 청결 지켜야

얼마 전 딸아이가 방학을 앞두고 자취방을 옮긴다고 해서 대학교 근처 아이 집으로 갔다가 아이의 학교를 구경하게 되었다.

딸과 함께 그 대학에 나들이 삼아 캠퍼스에 갔다가 크게 실망했다. 물론 우리 딸아이 때문은 아니며, 특정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캠퍼스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굴뚝처럼 담배연기가 자욱해서 혼났다. 더 놀라운 것은 화장실 옆에는 아예 재떨이까지 준비되어 있었지만 흡연실 바닥 주위에 담배꽂이가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었

고 심지어 변기 안에도 담배꽂이가 버려져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으나 담배꽂이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 화장실 바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건 분명 대학생들이 할 행동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도 스스로의 엄격한 규제와 절제로 타인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지성인다운 모습일 것이다. ▲박미진·목포시 서신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濤濟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72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기부 2200-634	문화홍보부 2200-661	광고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제부 2200-641	여론매체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1부 2200-612	체육팀 2200-663	다자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조선부 2200-57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